



열아홉번째 이야기

All & One

[2022 All & One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2일 토요일 이른 아침, 분주한 움직임과 손길 뒤에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한동홀을 채워가고 있고, 한쪽에서 카메라 앵글과 음향을 점검하는 손길이, 또 다른 곳에서는 한목소리로 찬양의 호흡을 맞추어가고

있었다. 7월 8일, 28주년의 BEE Korea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All & One'으로 BEE 가족이 오늘 모였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많은 BEE 가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정대서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 BEE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Beyond the Normal)



조문상 사무총장 말씀

“...올해의 중심 성구이기도 한 오늘의 본문(빌 3:14)은 이 풋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풋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풋대입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중요한 것은 승차감 보다는 하차감입니다. 우리의 삶은 승차감이 불편하더라도 하차감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차감은 일시적이지만 승차감은 영원한 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차에서 내릴 때 여러분이 느낄 하차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의 승차감은 좋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도는 하차감이 끝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차감이 좋은 삶을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즉 소명을 아셔야 합니다.”

풋대를 향한 삶의 특성

1. 신앙의 원칙에 입각한 삶
2. 예배와 봉사의 삶
3.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된 삶, 즉 풋대를 향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칙에 입각한 삶이며[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 6:12)], 예배와 봉사의 삶이며[...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빌3: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빌3:3)]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풋대를 압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 풋대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예배와 봉사가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

할 만큼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부름, 즉 풋대를 찾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그 풋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위한 사역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기까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협입니다. 정말 순순하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루체 콰이어의 Eres Tu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좋아~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졸업식과 컴퍼런스에서 다녀온 루체 콰이어의 찬양과 워십이 있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당신'이 있기에 감사하는 현지어의 찬양 속에서 선교지나 오늘 여기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다.

오색 색동 한복을 입고 부채의 고운 선을 펼치며, 우리의 리듬으로 '예수님의 좋아좋아' 합창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루체 콰이어의 모습에 열광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사람들이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였다.

상반기를 점검하며...



점검

일상을 넘어 꺾대를 향하여

조문상 선교사



‘일상을 넘어 꺾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 공동체와 개인의 꺾대를 확인하였다. 공동체의 꺾대인 ‘현지화’, ‘아프리카와 중남미 사역’, ‘온라인 사역’, ‘온라인 행정’, ‘라구’와 개인의 꺾대로 제시한 ‘신앙의 전수-기도, 모범, 대면’, ‘단기 선교 01월, 선교지, BMT’, ‘현장 선교사’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현재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반기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BEE Korea 28째 “생일 축하합니다.”



조문상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2곳의 8팀 졸업식과 사역자와의 만남(7월 4일-14일)을 위해 떠나시는 조문상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기도하였다.

축복하며... 떡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나는 기도 테이블 식구와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마음을 나누며 올해 "All & One"을 마무리하였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 "BEE 오는 수요일"은 여름 방학 동안 BEE 가족의 시원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 9월 7일(수)에 돌아오겠습니다. BEE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와 더위 속에서도 더욱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